

라이칭더 대만총통 취임...“양안관계 현상 유지” 강조

취임사 키워드 ‘은건·자신감·책임·단결’...차이잉원 정부 노선 유지 소식통 “가치외교로 이념 비슷한 동맹과 中압력 대응’ 취임사 담겨”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賴清德) 신임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제16대 총통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라이칭더 신임 총통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사오메이진(蕭美琴) 부총통과 함께 취임 선서를 하고, 한귀위 입법위원장(국회 의장)으로부터 ‘중화민국 국새’와 총통 인장을 넘겨받으면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라이 신임 총통은 이후 총통부 건물 밖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국정 비전을 밝힌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취임사 키워드로 ‘은건·자신감·책임·단결’ 등 네 가지를 선택하고, 전임 차이잉원 정부의 ‘민주·평화·번영’ 노선에 대한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라이 총통 측 소식통은 “지역 사무와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문제에서 라이 총통은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음’(不卑不亢)과 ‘현상 유지’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고, 양안이 함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는 선의를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주적 인정(韜光養晦)을 강화하고, 민주 동맹을 결합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담당하는

공헌자 역할을 유지할 것”, “대만을 ‘민주 세계의 MVP’로 만들어 가치외교로 이념이 비슷한 동맹과 친구가 되고, 현재 복잡한 지정학적 정세에서 중국의 각종 군사·외교 수단 압력에 함께 대응할 것”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아울러 “대만이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안정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라이 총통이 ‘대만 민주·평화·번영의 현상 유지·추진’을 자기 소임으로 유지하고, 5대 신뢰산업(반도체·인공지능·군수·안전통제·통신산업)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취임식 행사에는 미국에서 브라이언 디스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대표단이, 일본에서는 현역 여야 의원 37명 등 사상 최대 규모 대표단이 각각 참석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가 참석한다.

또 8개 국가원수급 대표단과 1개 국가부원수급 대표단, 1개 외교장관급 대표단 그리고 교황청 특사 등 세계 각국에서 총 51개 대표단이 취임식을 찾는다.

/연합뉴스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오른쪽)이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차이잉원 전 총통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 500명 이상의 해외 귀빈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령리스크?...트럼프, 연설 도중 30초 ‘얼음’

바이든 측 “트럼프, 정신적으로 빠르게 쇠퇴...대통령직에 부적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에 돌연 30초가량 발언을 중단하고 침묵을 지켰다.

올해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82)처럼 ‘얼음’ 상태에 빠졌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1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에서 열린 전 미총기협회(NRA) 연례 회의에서 1시간 30분 가량 연설했다.

당시 연설 중계 동영상을 보면 그는 1시간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투표 독려에 이어 텍사스주에 대

해 징전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발언을 멈추었고 정면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을 취하다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면서 “그는 계속해서 앞을 주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30초 정도 침묵을 지키다가 “우리나라는 쇠퇴하고 있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바이든 승리(Biden’s wins)’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유세에서 얼음이 됐다”면서 “그는 분명히 대통령이기에 부적합하다.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노망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를 리트윗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해리 시슨은 “트럼프가 30초간 얼음이 됐다”면서 “이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분명하게 부적합하다. 그는 정신적으로 빠르게 쇠퇴하고 있으며 대선 레이스에서 가능한 한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뉴스위크지가 보도했다.

민주당 측 지지자들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0초간 발언 도중 갑자기 얼음 상태가 되면서 고령 논란이 불거졌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례도 거론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당시 텔레프롬퓨터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장중에 의외는 소리 등을 듣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지인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연합뉴스

머스크 ‘뉴럴링크’ 컴퓨터 칩 이식 신청자 모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자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두뇌에 이식할 두 번째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뉴럴링크(Neuralink)는 두 번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생각만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텔레파시 사이버네틱 뇌 임플란트”라고 썼다.

뉴럴링크도 “사지마비를 앓고 있고 컴퓨터를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싶다면 우리의 임상 시험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주 척수 손상이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으로 양손 사용 능력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환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임상 환자 모집은 첫 번째 인간 실험 대상인 사지마비 환자 놀런드 아르보의 두뇌에 칩을 이식한 지 5개월 만이다.

신체 손상을 입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 온 뉴럴링크는 지난 1월 말 처음으로 사람의 뇌에 BCI를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지난 3월에는 사지마비 환자인 아르보가 휠체어에 앉아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 채 눈앞의 노트북 스크린에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며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이식된 칩에서 뇌와 연결되는 부위의 실 일부가 빠져나와 뇌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뉴럴링크는 이를 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이더리움 ETF 승인 시한 임박...거부 전망 확산

SEC 승인 거부 시 소송 이어질 듯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 지수펀드(ETF) 승인시한을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첫 이더리움 ETF 승인신청에 대한 SEC의 결정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거의 없으면서 신청회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 발표 몇 주 전부터 신청회사들에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SEC가 수개월째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SEC는 이더리움 ETF를 처음 신청한 반이크에 대해 다음 주인 23일에 결정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4월에 이더리움 가격은 20% 가까이 하락했다.

SEC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트코인 승인 때에도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S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8월 승리한 것이 승인의 발판이 됐다. /연합뉴스

문지르면 빵냄새 솔솔...프랑스 바게트 우표 발행

프랑스를 상징하는 바게트가 우표에 들어갔다. 프랑스 우체국은 17일(현지시간)부터 바게트 냄새와 이미지를 담은 우표를 한정 발행했다고 TF1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 우표에 삽입된 이미지에는 프랑스 미식의 상징인 바게트가 프랑스 국기 색인 청색색 리본으로 묶여 있다. 우표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갓 구운 바게

트 냄새가 나도록 잉크에 특수 향기 캡슐도 담았다. 총 59만 4000장의 우표가 인쇄됐으며 개당 1.96유로(약 1400원)에 판매된다.

바게트는 1유로 인판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랑스 ‘국민 빵’으로, 2022년 유네스코(UNESCO)에서 ‘바게트의 장인 노하우와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앱으로 접속하십시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m ²]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3타경 8219	5	나주시 우정로72, 1층 165호 [빛가람동,더글래스] 105.01㎡	상가,오피스스텔등	634,000,000 634,000,000	
	6	나주시 우정로72, 1층 170호 [빛가람동,더글래스] 61.15㎡	상가,오피스스텔등	478,000,000 478,000,000	
	1	서구 시청로13, 제2층 제201호 [치평동,상무리채2] 82.005㎡ [목적1제201호,6제208호,7제209호구분건물과각층별경계벽제거해일체로이용중,건축물현황도등에의해위치특징가능,복원용이한것으로조사]	근린시설	279,000,000 279,000,000	
	2	서구 시청로13, 제2층 제202호 [치평동,상무리채2] 109.34㎡	근린시설	372,000,000 372,000,000	
	3	서구 시청로13, 제2층 제203호 [치평동,상무리채2] 112.7133㎡	근린시설	402,000,000 402,000,000	
	4	서구 시청로13, 제2층 제206호 [치평동,상무리채2] 136.2025㎡	근린시설	464,000,000 464,000,000	
2023타경 9595	5	서구 시청로13, 제2층 제207호 [치평동,상무리채2] 100.455㎡	근린시설	342,000,000 342,000,000	2층공용부분 [복도부분]일부막아점용사용중으로조사
	6	서구 시청로13, 제2층 제208호 [치평동,상무리채2] 80㎡ [목적1제201호,6제208호,7제209호구분건물과각층별경계벽제거해일체로이용중,건축물현황도등에의해위치특징가능,복원용이한것으로조사]	근린시설	265,000,000 265,000,000	목적6,7건축물현황도면상표시원출입문폐쇄,목적1부동산통해출입하는것으로조사
	7	서구 시청로13, 제2층 제209호 [치평동,상무리채2] 79㎡ [목적1제201호,6제208호,7제209호구분건물과각층별경계벽제거해일체로이용중,건축물현황도등에의해위치특징가능,복원용이한것으로조사]	근린시설	261,000,000 261,000,000	목적6,7건축물현황도면상표시원출입문폐쇄,목적1부동산통해출입하는것으로조사
	8	서구 시청로13, 제2층 제210호 [치평동,상무리채2] 80㎡ [목적1제201호,6제208호,7제209호구분건물과각층별경계벽제거해일체로이용중,건축물현황도등에의해위치특징가능,복원용이한것으로조사]	근린시설	261,000,000 261,000,000	목적6,7건축물현황도면상표시원출입문폐쇄,목적1부동산통해출입하는것으로조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3타경 9946	1	담양군 월산면 중평리 645 498.6㎡ 담양군 월산면 중평리 34-8 1층 111.33㎡ 84.7㎡ [물건번호1-경정형기서상1층일부현장주수,에어컨및물부품등미설치된것으로조사]	대 단독주택	665,744,310 665,744,310	일괄매각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3타경 82279	2	북구 월동로70-3, 제4층 제401호 [두암동,다세대주택] 29.7㎡	다세대	44,000,000 44,000,000	

●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무원이 인사징벌령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권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시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무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절기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각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표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